

“우리 아이 첫 주식은 ‘삼성전자’”... 미성년 투자 열풍 확산

삼성전자 거래건수 56.3%로 1위
0~9세 계좌 개설 증가율 119.2%
계좌당 평균 잔고 약 1000만원



삼성전자 사옥

/뉴시스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선물한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5일 KB증권이 자사 고객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선물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기준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유 중인 주식을 선택한 후 수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선물할 수 있다.

삼성전자 선물 건수는 같은 기간 KB증권 고객중 미성년자 대상 국내 주식 선물 건수의 56.3%에 달했다. AI(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

승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른 대형 반도체주 대비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 선물 부담이 적은 점도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AI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HBM(고

대역폭메모리) 시장 내 점유율 회복이 기대되고,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CAPA(생산능력)를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주목한다"고 했다.

기아를 두 번째로 많이 선물했는데, 미성년자 국내 주식 선물 건수의 6.5%가 기아로 몰렸다. 글로벌 신차 수요 감소 추세 속에서도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한 데다,

원·달러 환율 급등의 수혜, 로보틱스 모멘텀 등이 기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카카오(6.1%), HLB(3.7%), 에코프로비엠(3.6%), 덕산테크피아(3.0%), DS단석(2.5%), POSCO홀딩스(2.1%) 등 순으로 많이 선물했다.

국내 또다른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1.5%) 선물 비중은 1%대에 그쳤다. 현재 1주당 가격이 140만원을 넘어선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성년 자녀에게 많이 선물한 상위 10개 국내 종목의 지난달 수익률은 모두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지수 대비 성과는 종목별로 엇갈렸다.

SK하이닉스의 지난달 월간 수익률이 59.4%로 가장 컸으며, POSCO홀딩스(39.0%), 삼성전자(31.9%)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지난달 월간 코스피 수익률(30.6%)을 웃돈 수치다.

다만 덕산테크피아(29.2%), DS단석(23.7%), HLB(20.2%), 기아(4.6%),

NAVER(4.7%), 에코프로비엠(7.2%), 카카오(3.3%)는 코스피 수익률을 밑돌았다.

역대급 '불장'에 9세 이하 어린이 주식계좌 개설도 급증했다. 대신증권이 연별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대비 지난달 0~9세 계좌 개설 증가율은 119.2%에 달했다. 이는 30대(352.6%)와 20대(308.4%), 40대(220.8%)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10대 신규 계좌 개설 증가율은 101.1%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신한투자증권도 지난 1~3월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현황과 국내외 주식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2%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성년자 계좌의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데이터가 새 먹거리”... 거래소·NXT 수익화 시동

넥스트레이드, 내년 3월부터 유료화
한국거래소, 데이터 사업 정비·확대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로 확장되면서 국내 증시 관련 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XT)는 그간 무상제공해온 시장 데이터를 내년 3월부터 유료화할 예정인 한편, 한국거래소(KRX)도 가격체계 조정과 서비스 개편을 통해 관련 사업 정비 및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NXT는 작년 3월 출범 이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왔지만, 내년 3월부터는 과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시장 정보제공업체들과는 이미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한 상

태로, 기존 무상 제공을 유료로 전환하는 식이다. 계약된 업체 중 해외사의 비중은 3분의 1 정도로 알려졌다.

적용 요율은 한국거래소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유료화 전환을 통해 넥스트레이드의 데이터 사업 매출 비중은 회사 전체 매출의 10~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해 넥스트레이드는 회사 내부 회계 절차를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도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최근 가격체계를 조정했다. 올해 3월, 과거 수치를 제공하는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부문 매출은 2024년 19억원이었지만, 작년 한

해 코스피가 주요국 지수 중 수익률을 1위를 기록하는 등 활황을 맞이하자 이는 42억원으로 1년 만에 121% 뛰었다. 작년 말 기준 거래소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해외 고객 비중은 94%에 달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도입해 데이터 제공 속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클라우드 환경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 구조 역시 정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 성향을 파악해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단위별 데이터 선택과 활용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작년부터 구독형 모델을 확대해 데이터를 매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시장 호가·체결 데이터 등 용량이 큰 데이터도 자동

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거래소 데이터 사업의 주축이자 코스콤과 협업 중인 '실시간 데이터'의 매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실시간 데이터 매출은 작년 981억원을 기록해 전년(945억원) 대비 3.8% 늘어났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대문' 격인 정보데이터마켓플레이스(KDM)를 중심으로 외국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공시 정보 기반 데이터 사업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상장 공시 시스템을 통해 XBRL(확장성 경영보고언어) 기반 공시 정보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는 이를 데이터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사업화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허정윤 기자

외인 개인정보 암호화 국내 투자장벽 낮춘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엔 실명과 여권번호 등 식별번호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암호화된 투자자구별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 내역을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내역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내역 보고의무는 유지하되,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정보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식별번호 노출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여럿 제기돼서 당국으로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특정 투자자구별번호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실명·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허정윤 기자

변동성 올라탄 서학개미, SOXL·SOXS 동시 베팅

해외주식 Click
순매도 이어지다 최근 매수 전환

미국 증시에서 한동안 이어졌던 '유턴' 흐름이 다시 주춤하며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재차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4월 초·중순까지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며 투자 방향을 빠르게 틀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누적 기준 15억7200만달러(약 2조3000억원)를 순매도했다. 그러나 4월 23일부터 6영업일 동안 11억300만달러(약 1조6000억원)를 순매수하며 기존 매도 몰락 상당 부분을 되돌렸다. 뉴욕



ChatGPT로 생성한 국내 투자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동 묘사.

증시가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가 커진 점이 매수 전환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일주일(4월 25일~5월 1일) 기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몰림이 두드러졌다. 필

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SOXL)가 약 1억8300만 달러 순매수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텔(약 1억2200만달러), 샌디스크(약 86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집

중 매수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HPC) 시장 확장 속에서 메모리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면서 관련 ETF와 종목으로 자금이 몰린 것이다.

다만 상승 기대와 함께 단기 조정에 대한 경계심도 동시에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SOXS)도 약 7200만달러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상승 레버리지(SOXL)와 하락 베팅(SOXS)이 동시에 매수되며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전략이 강화된 모습이다.

지수형 상품에 대한 매수도 이어졌다. 나스닥100 ETF(QQQ)와 S&P500 ETF(SPY)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상위권에 포함되며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한 투자 선호는 유지됐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